***Report***



**Microsoft**

**제 출 일 : 2015. 06. 05**

**소 속 : 소프트웨어학과**

**과 목 : IT 세미나**

**이 름 : 정유석**

EMB000005ec6b9b

**Index**

1. Introduction
2. Microsoft

2. 1 Products

2. 2 Crises

2. 3 Strategy

1. Conclusion

References

1. Introduction

우리는 문서를 작성할 때,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 강의 자료를 준비할 때도 워드, 파워포인트 등을 사용하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 경우에도 Internet explorer를 이용한다. 이처럼 회사, 학교 등 여러 곳에서 Microsoft회사의 제품들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으며, 컴퓨터 OS 또한 Window OS를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Microsoft사의 제품들과, 회사의 위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 이번 레포트를 통해 알아보자.

2. Microsoft

Micorsoft는 1975년 빌 게이츠와 폴 앨런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 워싱턴 레드몬드에 있다. Microsoft는 베이직 인터프리터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현재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2013년 기준 Micorsoft의 직원 수는 100,000여명이며, 매출액은 778억 5000만 달러(86조 5천억원)를 기록했다.(1)

2. 1 Products

Microsoft의 제품에는 ‘Windows’, ‘Office Suite’, ‘Office 365’, ‘Xbox’ 등이 있고 서버에는 ‘SQL Server’, ‘IIS’ 등과, 태블릿 PC인 ‘Surface’가 있다. 먼저 Windows를 보겠다.

대표적인 컴퓨터 OS중 하나인 ‘Window’는 현재 전 세계 90%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쓰고 있으며, 서버용 운영 체제로도 점차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Window는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일반 사용자들에게 매우 익숙할뿐 아니라 호환되는 유명한 응용 프로그램이 많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만큼 보안 문제에서는 취약한 부분이 많은 운영 체제로 인식되기도 한다. 현재 Window에는 ‘Window 7’, ‘Window 8’과 최근 버전인 ‘Window 10’이 있다.(2)

먼저 ‘Window 7’은 이전 버전인 ‘Window 비스타’에서 새로운 기능이 많이 도입된 것과 달리 Window 비스타에서 이루어 놓은 응용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호환성을 개선함과 더불어 윈도 계열의 중심적이고 점층적인 업그레이드에 집중하였다. 이것은 마우스와 키보드로 작업을 하고 워드, 엑셀과 같은 익숙한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였다. 하지만 다음 버전인 ‘Windows 8’에선 위의 기능에 더불어 터치 PC와 태블릿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Windows 스토어의 앱이나 메일, 피플 등의 내장 앱들을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컴퓨터와 장치에서 설정과 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2) 그리고 최근 버전인 ‘Window 10’은 Window 7의 기존 응용프로그램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시작 버튼과 Window 8 계열의 윈도우 스토어 앱에 액세스하는 시작 버튼을 혼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시작 버튼과, 창화면으로 작동하는 메트로 앱, 스냅기능 향상, 새로운 테스크 뷰 버튼, 멀티 데스크탑, 코타나 음성 인식 프로그램 등의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다.(2)

‘Microsoft Office’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 아웃룩, 퍼블리셔, 엑세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은 이동 중인 경우, 휴대용 기기에서 ‘Office Online’ 기능을 통해 Office를 사용할 수 있고, iPhone, Windows Phone, Android 모두 호환이 가능하며, 다른 사람들과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등을 공유 및 실시간 공동 작업도 가능하다. ‘Microsoft Office’의 ‘Office 365’는 온라인 구독 기반의 Office 프로그램이다. 또한, ‘Office Suite’은 Microsoft Excel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Microsoft Word (워드프로세서) 그리고 Microsoft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모음이다.(3)

‘IIS’는 Window를 사용하는 서버들을 위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의 모임으로, Microsoft사의 Browser/Web Server로 FTP, SMTP, NNTP, HTTP/HTTPS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Internet Explorer’는 Microsoft의 웹 브라우저로 Window OS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Internet Explorer Mobile’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Window 10과 8.1에 추가되는 ‘Spartan’ 개발으로 인해 더 이상의 버전 업그레이드는 없다고 한다.(4)

Microsoft사의 Database Server인 ‘SQL Server’는 1989년 Sybase를 기반으로 개발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다. 또한, ‘Microsoft Office’의 제품 중 하나인 ‘Access’는 개인, 사무용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다.(2)

‘Xbox’는 Microsoft가 개발한 가정용 게임기로 ‘Xbox One’과 ‘Xbox 360’이 있다. 이것을 통해 사용자는 게임, TV, 영화, 음악, 스포츠 등을 할 수 있으며, 동시 플레이도 가능하다. 또한 SmartGlass가 지급되고, Kinect가 장착되 모션을 인식하여 사용자의 재미와 접근성을 높였다.(5)

‘Surface’는 Microsoft의 태블릿 컴퓨터로, Window 8.1을 기본으로 Office가 포함되어 있고, 4세대 인텔 코어를 기반으로 킥스탠드, USB, HD 비디오 출력 등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다.(2)

2. 2 Crises

Microsoft는 license fee를 받아 소프트웨어만 팔아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었다. 하지만, 20년 전부터 몇 가지 소프트웨어 산업의 판도가 바뀌어 현재 입지가 많이 위축되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 변화가 Microsoft를 위축되게 하였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Window OS’의 위기다. Micrsoft는 2012년 출시된 Window 8은 시작버튼 삭제, 타일화한 메인 화면,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는 등 기존과 전혀 다른 운영체제 환경을 선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너무 급격한 변화 때문에 낯선 작동법으로 이용자들은 출시 초기부터 불만을 호소했다. 특히, 하단 표시줄의 시작 버튼이 없어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래서 Window 8에 대한 혹평을 만회하려고 Microsoft는 Window 8.1과 Window 8.1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이것은 PC를 키면 바로 데스크톱 모드가 뜨도록 변경하는 등 전통적인 PC사용자 경험을 되살리려는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실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긴 했으나 시장 점유율을 되찾지 못하고 실패한 OS로 남게 되었다.(6)

다음은 Office의 위기다. 운영체제의 전통적 강자인 Microsoft가 자부심을 가진 또 다른 분야는 사무용 문서 작성 프로그램인 ‘Microsoft Office’였다. 이 프로그램은 그간 시장을 ‘독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PC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애플과 구글이 시장 경쟁력을 넓히기 위해 잇따라 모바일용 Office 앱을 무료로 전환하면서, 애플과 구글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판 오피스 프로그램인 ‘아이워크’는 모든 iOS 기반 모바일 기기에 무료로 제공되고, MS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대체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용 프로그램이 모두 들어가 있다. 구글도 이에 질세라 안드로이드와 iOS 기기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퀵 오피스'를 무료로 배포했다. 이것은 이전에 MS 오피스 문서 편집이 되지 않는 단점까지 개선하며 기능까지 강력해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Office 시장에서 독점했던 Microsoft사는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6)

​또한 ‘터치스크린 PC’의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Window 8 시리즈는 출시 당시부터 터치패널에 특화된 OS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실제로 Microsoft가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에 이어 집중한 타겟이 '터치스크린형 PC다. 그러나 전 세계 터치스크린형 PC에 대한 수요 전망은 하락하는 추세로, 2013년 터치스크린을 장착한 노트북 출하량이 전체 노트북 출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망을 기존 예상치인 17∼18%보다 낮은 10∼15%로 하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터치스크린 장착 기기에 특화된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던 MS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6)

2. 3 Strategy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Microsoft는 2014년 Window 10을 발표하며 OS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다시 가져오려 하고 있다. Window 10은 파격적인 변신을 예고했는데, 첫째가 ‘Internet Explorer’ 퇴출이다.(7)

과거 Microsoft는 익스플로러를 Window에 끼어 팔기 하면서 다국적으로 제재까지 받으면서도 익스플로러 확산을 위해 노력했지만, 다양한 웹 브라우저들이 등장과 표준 규격을 지키지 않아 호환성 문제로 인해 점점 사용자들의 이용률이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Microsoft는 새로운 익스플로러 버전을 출시하는 것이 아닌 익스플로러를 완전 퇴출하고, 새로운 웹 브라우저인 ‘Spartan’을 출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Window만을 위한 웹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와는 달리 다양한 운영체제에 지원이 가능하고, 웹 표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기존의 UI 대신 크롬처럼 간결하고 쉬운 UI를 채택하여 소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7)

또한, 기존 Window 사용자들을 위한 무료 업그레이드이다. Microsoft는 항상 새로운 Window를 출시하면 새로 구입을 하거나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는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영업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OS 업그레이드는 무료라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구글과 애플이 주축이 되어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제공되는 OS는 항상 무료로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간접적으로 PC용 OS시장을 압박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위기를 느낀 Microsoft는 기존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Window 10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식 버전이 아닌 해적판 윈도우 사용자들에게까지 Window 10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고 한다.(8)

그리고, 모바일-클라우드 시대를 위해 Window 디바이스의 디바이스 타입, 스크린 사이즈, 가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폭넓은 윈도우 디바이스 라인업을 갖추고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전략이다. 최근 Microsoft는 보다 완벽한 라인업을 위해 여러 가지 윈도우 디바이스 신제품을 선보였고, 이를 통해 소형 PC에서부터 태블릿, 데스크탑, 2-in-1, 올인원(AIO)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군은 물론 8인치부터 29인치까지, 10~20만원대부터 200만원대 제품까지 폭넓은 사이즈와 가격대 제품 라인업을 제공하고 있다.(2) 그리고, Microsoft 디바이스 제품에 OS / Office 무료 카드를 꺼내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으며, ‘유니버셜 앱’을 공개하며 디바이스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고도로 개인화된 컴퓨팅 제공에 초점을 두고, 스마트폰부터 태블릿, 웨어러블 등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일관된 플랫폼과 경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9)

또한, 새로 신임된 CEO 나델라를 통한 Microsoft의 수익모델의 변화가 주목된다. 자존심을 버리는 것은 물론, 가격인하와 멀티OS 정책은 수익모델을 ‘라이선스’에서 모바일과 클라우드 ‘서비스’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Microsoft Office의 핵심모델인 ‘원노트’를 무료로 공개하여 ‘에버노트’에 대항하고, 구글 클라우드에 대항하여 오피스 또한 웹 오피스로 제공되어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간단히 브라우저를 통해서 문서작성이 가능하도록 제공한다.(10)

3. Conclusion

이번 레포트를 통해 Microsoft의 다양한 제품들을 알게 되었다. 특히, Microsoft Surface와 Xbox 제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좋았다. 또한, 순수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다양한 하드웨어도 판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

최근 Microsoft는 새로운 CEO인 나델라를 통해 경영 정책을 라이선스 판매에서 서비스 전략으로 바꿨다. 또한, 급진적인 개혁을 통해 마이크로 소프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애플과 구글의 경영 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Office 제품과 OS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Microsoft는 무조건 유료다”라는 나의 개념에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늦었지만 Microsoft도 시대에 맞춰 변화해 간다는 느낌을 받았고, Window 10과 Spartan을 통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며, 기존의 익스플로러와 달리 다양한 OS를 지원하면서 자신들의 고집을 꺾은 모습도 보기 좋았다.

References

(1) 위키트리 : [www.wikitree.co.kr/](http://www.wikitree.co.kr/)

(2) 한국 Microsoft : <http://www.microsoft.com/ko-kr/default.aspx>

(3) Microsoft Office 블로그 : <http://microsoft_office.ko.downloadastro.com>

(4) 엔 하위키 미러 : <https://mirror.enha.kr/wiki/Microsoft%20Office>

(5) Xbox 공식 홈페이지 : <http://www.xbox.com/ko-kr/>

(6) ebuzz : <http://www.ebuzz.co.kr/news/article.html?id=20130925800023>

(7) 디지털로그 : <http://digitalog.com/797>

(8) Bodnar : <http://www.bodnara.co.kr/bbs/article.html?num=113047>

(9) IT Issue Jockey : <http://captainhook.kr/32>

(10) Namedia : <http://namedia.tistory.com/109>